

8월의 기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3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의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충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위대한 발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원한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지식인이나 과학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결국 우주와 천지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발견하고 놀라워합니다.

DCEM 성회 안내
2013년 8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성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순복음영산교회, 시가키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 (02)761-6142 / dcem@davidcho.com



July News Letter

조용기 목사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성회

“꿈·비전을 가져라”... 동남아에 오순절복음 선포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오순절 순복음이 선포됐다.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은 7월 9일 싱가포르 시티하베스트교회와 7월 10일 인도네시아 반둥 수카와르나교회에서 조용기 총재목사 초청 대성회를 개최하고 절대긍정의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제시했다.
7월 9일 시티하베스트교회 싱가포르 선택 시티홀에서 1만여 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를 인도한 조용기 목사는 4차원 영성을 통한 믿음과 기도를 강조했다. 그리고 “고난은 믿음의 학교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욱 힘써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조용기 목사는 인도네시아의 산업도시 반둥을 방문해 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조용기 목사를 맞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부흥을 이끌고 있는 니코 노토라하조 목사가 자카르타에서 반둥으로 찾아와 환영했다. 니코 목사는 자카르타 GBI교회 담임으로 전세계에 800개의 지교회를 개척해 20만명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7월 10일 저녁 조용기 목사 초청 교회 지도자 세미나가 GBI 수카와르나 반둥에서 열렸다. 세계적인 주의 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15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다. 무엇보다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이같은 행사가 열려 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순복음도봉교회 성가대 60여명이 참석해 퍼포먼스와 찬송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강단에 선 조용기 목사는 “부흥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온다”며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고 전한 조용기 목사는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주신다. 꿈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번 성회에서 니코 목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오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와 니코 목사 그리고 참석한 지도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와 부흥’을 위해 방언으로 기도했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의 물결이 아시아를 시작으로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 예수님 안에 있는 해방과 자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중략)...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1~10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첫 이미지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예수님의 나라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 1.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우리는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귀에게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있는 천사 중에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며,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장관입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하늘 성가대의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보다 루시퍼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루시퍼에게 교만이 들어왔고,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사가 14장 12절로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렇게 루시퍼는 하나님 제일 높은 보좌가 계신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또한 자기 혼자만 쫓겨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천사

들까지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 귀신들은 한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마귀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꾀어 내어 죄를 짓게 만들고, 귀신들과 더불어 이제는 사람들 가운데 온갖 흉악한 일을 다 행하고 흑암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평안히 살려면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 들어와 휘방하는 배후의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 2. 영적 전쟁,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것을 이미 예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예수님께서서 절대로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은 청산되었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저주와 고통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감옥인 지옥도 이기고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세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중생의 복음을 통해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얻고, 성령충만의 복음을 통해 성결과 성령충만을 얻고, 신유의 복음을 통하여 치료와 건강을 얻고, 축복의 복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으며, 재림의 복음을 통해 부활과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들을 통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얻어 그것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누

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몸 찢기고 피 흘려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물리치시고 빼앗아 되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생을 무효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삶 속에 가지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마귀의 나라는 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승리한 것입니다.

### 3.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정사와 권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새로운 권세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어 복 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정사와 권세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정사와 권세는 바로 죄와 허물을 이기고 질병과 저주를 이기고 죽음과 멸망을 이긴 새로운 세계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믿고 주장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모두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합법적으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그렇게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잘됩니다. 우리의 범사도 잘됩니다. 우리는 강건합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들리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부끄럽거든 안들리는 데서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나는 형통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믿고 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조용기 목사 초청 싱가포르 대성회 조용기 목사 4차원 영성의 믿음과 기도 강조

DCEM 조용기 총재목사는 7월 9일 저녁 싱가포르 선택시티홀에서 시티하베스트교회(담임목사 공히)가 주최한 특별성회를 인도했다. 이날 성도들은 ‘불가능한 것은 없다(Nothing is impossible)’라는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있었다. 이 찬양처럼 공히 목사와 시티하베스트교회는 전세계의 우려와 불가능한 조건 속에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의 박해 속에서 공히 목사와 7명의 목회자들은 기쁘게 사역하고 있었고, 교회와 성도는 계속 부흥하고 있었다. 이날 조용기 목사의 성회는 평일임에도 1만여 명이 넘게 집회에 참석, 좀 늦은 성도는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시티하베스트교회의 열기는 더욱 뜨겁고 활기차게 타오르고 있었다.

특히 이날 성회는 영적 거장인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싱가포르 인근국가 지도자들도 참석했다. 공히 목사와 성도들은 이들을 크게 환영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4차원 영성을 통한 믿음을 강조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는 크다. 그러므로 기적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조용기 목사는 입술로 시인하는 고백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강건해진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의 고백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용기 목사 초청 싱가포르 대성회는 대한민국의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의 사역을 배워 큰 부흥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성회는 DCEM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직 기도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성회였다.

# 조용기 목사 초청 인도네시아 지도자세미나 아시아 영적 지도자들 함께 ‘기도’



세계최대 모슬렘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성령 축제’가 열렸다. DCEM 조용기 총재목사는 7월 10일 인도네시아의 산업도시 반둥을 방문, 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GBI 수카와르나 반둥에서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15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순복음의 선교사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인도네시아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는 니코 노토라하조 목사(자카르타 GBI)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나는 조용기 목사님을 온 마음으로 존경한다. 그는 늘 모든 교회를 협력하게 했다. 협력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였다. 하나님은 한국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택하셨다.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여의도교회가 부흥될 때 한국과 세계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인도네시아를 통해 복이 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조용기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히 목사(싱가포르 시티하베스트교회)는 축사를 통해 “한국은 기도로 아주 유명한 나라다. 조용

기 목사님의 55년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다. 그의 기도는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변화시켰다. 인도네시아의 교회 부흥을 인도한 니코 목사님은 가장 훌륭한 찬양 사역자이다. 이 두 목회자는 기도하는 주의 종이다. 기도만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후 모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요청했다.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한국을 통해 체험했다. 처음에 우리 성도들은 너무도 가난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복을 받았다. 인도네시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섰을 때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도네시아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기도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순복음도봉교회 성가대와 단기선교팀 60여 명이 참석해 퍼포먼스와 찬송을 선보였고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설교 후 조용기 목사는 니코 목사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울려 퍼진 이들의 기도 함성은 인도네시아에 다가올 부흥을 기대하게 했다.